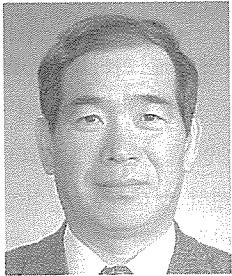


설립 7년만에 회원 3천4백여명 규합

제어·자동화·시스템공학회

제어·자동화·시스템공학회는 기계, 전기, 전자, 정보통신, 화공, 항공우주 공학 등의 다양한 공학과 기술분야에서 제어·자동화 및 시스템(Control, Automation and Systems)분야의 학제적 영역을 중심으로 통합하여 설립된 공학회이다. 1994년 9월 초대 회장 우광방교수(연세대학교)를 비롯하여 제2대 회장 배순훈(대우전자 회장), 제3대 이현구(서울대학교 교수), 제4대 이희종(LG산전 부회장), 제5대 권옥현(서울대학교 교수), 제6대 박운서(LG상사 부회장), 2001년 현재 제7대 조형석(한국과학기술원 교수)회장이 재임중이며, 설립 이래로 7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 중견학회로 성장 발전하고 있다.

2001년도 현재 학회의 규모는 개인 회원 3천4백여명과, 단체회원 1백여기관, 특별회원 40여 회사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대구경북, 대전충남, 부산경남울산, 광주전남, 전주전북지부 등의 5개 지부를 통하여 활발한 지역 학술활동과 전국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공정시스템, 로보틱스 및 응용, 마이크로시스템, 머신비전, 반도체생산자동화, 생체제어시스템, 지능시스템, 제어이론, 철강제어기술, 항법유도제어연구회 등 10개의 연구회를



趙 榮 錫

(제어·자동화·시스템공학회장)

통하여 전문분야에 대한 회원간의 정보교류 및 학술활동을 증진시키고 있으며, 사업추진위원회, 산학협동추진위원회, 회원서비스추진위원회, 정보화추진위원회, 핸드북 및 교재사업추진위원회, 광고추진위원회 등 6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를 바탕으로 학회의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있다.

영문논문지 발간, 국제화 추진

또한, 제어·자동화·시스템공학회는 IFAC(International Federation of Automation Control)의 국내 대표기관으로 이를 통한 국제적인 학술행사를 국내에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2001년도 개최되는 각종 학술행사를 국내에서 개최하도록 예정되어 있으며, 특히 2008년에는 세계적인 국제학술행사인 IFAC 2008과 IFAC 회장직에 서울

대학교 권옥현교수(본학회 5대 회장)가 내정되는 등 국제적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SICE(Society of Instrument and Control Engineers)학회와는 정기적(2년 주기)으로 합동 워크숍을 갖기로 합의, 2001년 7월 24일에 일본 나고야대학에서 제1차 SICE-ICASE 워크숍이 개최될 예정이며, 중국 CAA(Chinese Association of Automation), 미국의 IEEE R&A (IEEE Robotics and Automation Society)와도 협정을 체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제화 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국자동제어학술회의 국제 세션을 International Conference로 승격시키고, 이미 협력 각서를 체결한 IEEE R&A(미국), SICE(일본), CAA(중국) 학회들과의 협력관계를 실질적인 학문·기술·회원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유럽 및 아시아 등 기타 유관 국제 기구와의 협력을 모색하여 국제교류의 폭을 넓혀 나가고 있으며, 국제 학술 대회에 대한 지원과 협력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세계적인 학회로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1년도 정기 간행물로는 영문 논문지(Transactions on Control,

**1994년 설립된 제어·자동화·시스템공학회는 7년만에
회원 3천4백여명을 확보하여 중견학회로 성장 발전하고 있다.**

**전국 지역에 5개 지부를 두고 10개 연구회와
6개 위원회 중심으로 학술활동을 펴고 있다.**

**학회논문지는 연간 12회, 학회지는 연간 6회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영문논문지를 연간 4회 발간하여 이를 통한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Automation and Systems Engineering)를 연 4회 발간하여 이를 통한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영문 논문지의 국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외국인 투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홍보하고 외국인 편집위원 활동을 활발히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국문 논

문지(제어·자동화·시스템공학 논문지)는 연 12회 발간하고 있으며, 2000년도 말에 실시한 교육부 평가에서 A등급의 판정을 받았다. 학회지(제어·자동화·시스템공학회지)는 연 6회 발간되고 있으며, 보다 충실한 내용과 친근한 학회지로 발전 및 도약하기 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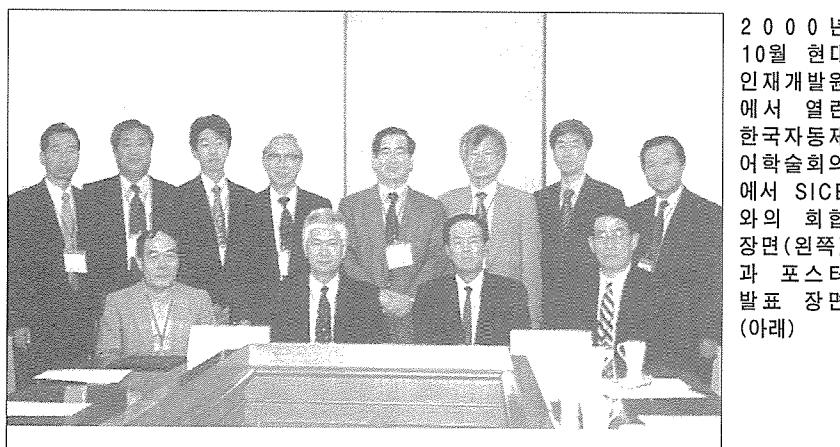
여 디자인과 내부 기사를 보강하여 규모나 질적인 측면에서 한층 더 수준높은 방향으로 발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 산업체 포상으로 강영국기술상과 학계 포상으로 짧은 연구자 논문상, 한국자동제어학술회의(KACC)에서 'The best paper' 'The best student paper' 등 학회의 위상과 국내 관련 분야의 기술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포상하여 과학기술인의 긍지를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홈페이지 통해 첨단정보 제공

현재 제어·자동화·시스템공학회는 실시간 및 open system으로 구축된 홈페이지(<http://icase.or.kr>)를 운영중에 있으며, 이를 더욱 발전시켜, 중소기업 및 신제품 소개 및 제어·자동화 및 시스템공학 관련 기업 및 연구소 등을 D/B화 하여 산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E-mail 시스템을 조기에 완성하여 회원의 80% 이상이 E-mail을 통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며 앞으로 웹의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국내외의 회원에 대한 서비스와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자 한다. 



2000년
10월 현대
인재개발원
에서 열린
한국자동제
어학술회의
에서 SICE
와의 회합
장면(원쪽)
과 포스터
발표 장면
(아래)

